

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20 Summer vol.23

ail

good in life



Intro	04	다시 꿈꾸는 일상
Focus 1	06	사명감 하나로 사투 벌이는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진에 감사
Focus 2	10	동국대학교병원, 그 현장 속으로
Medical Theme 1	12	코로나19, 그 이전과 이후
Medical Theme 2	14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즐거운 코로나19 생활
Medical Theme 3	16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Korean Medicine	18	면역력 강화
Safety Tip	20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Memoirs	22	14년의 기적
Interview	26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Food	30	꽃에서 뿌리까지 귀한 식재료, 면역력에 좋은 연 밥상
Travel	32	여름날의 보물찾기, 속리산 법주사
Introduction	36	의료진 소개
News	40	DUMC News
Together	44	기부금 안내

다시 꿈꾸는 일상

바지런해지자, 결심했었죠.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해 제대로 운동을 시작하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몇 년간 미뤘오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그렇게 맞은 2020년 한해가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심 3일로 새해 계획이 뭉개지는 거야 익숙한 일이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빼앗긴 적이 있었던가요. 너무 당연히 누려 무심히 흘려보내던 일상. 어쩌다 일상이 이토록 간절해졌을까요.

코로나19는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경험에 비춘 우리의 예측을 빗나갔지요. ‘빠르고 힘센’ 코로나19에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 명이 죽고, 도시는 텅 비어갑니다. 영화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에 전 세계가 허둥대고 있지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계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이 지금으로선 빈말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멈춰세운 데 이어 인류 역사와 사회를 확연하게 바꿀 거란 무거운 전망이지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답답한 터널 안에서 우린 다시 일상을 꿈꿉니다. ‘대구·경북으로 와달라’는 호소문에 치명적인 위험 속으로 한걸음에 달려간 의료진들, 더 절박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기꺼이 양보한 시민들,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한 국민들. 따뜻한 연대가 일상을 우리 곁으로 조금씩 끌어당기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25억~40억 년 전부터 지구촌에 정착해온 바이러스의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단기간에 박멸하겠다는 인간의 외침은 무모하고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백신과 치료제로 잠재할 수 있을 뿐이지요. 박멸이란 가능하지도 않지만 인간의 아주 오만한 발상이란 거지요.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 머물며 종종 큰 위협으로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바이러스와 슬기롭게 공생하기, 다양한 생명체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일상을 맞는 자세일 겁니다.

What we do?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
특별 인터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 성 민

사명감 하나로
사투 벌이는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진에 감사



사진 불교신문 김형주 기자

국민안심병원 지정
호흡기 환자용 분리된 외래 공간
안심중환자실 의심 환자 입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의심 환자를 검사하며 바이러스 차단에 나섰던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여러 나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는 의료진의 노력 때문이다.

감염의 공포를 이기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불교를 대표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도 마찬가지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호흡기환자들을 분류해 별도공간에서 진료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3월 24일 조성민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을 만나, 불교 병원으로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은 전염병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전선에 서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메르스가 유행할 때나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산과 경주병원은 현 상황을 이겨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처음 생긴 이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는 1월 23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던 2월 21일부터는 원인불명 폐렴 환자를 격리하는 ‘안심병동’과

음압 시설이 구비된 ‘안심중환자실’을 마련했다. 또 병원 밖 컨테이너 6개와 천막을 설치했다. 호흡기 환자용 별도 외래공간과 해외를 다녀왔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 있는 내원객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외래 환자와 분리했다. 이런 노력으로 2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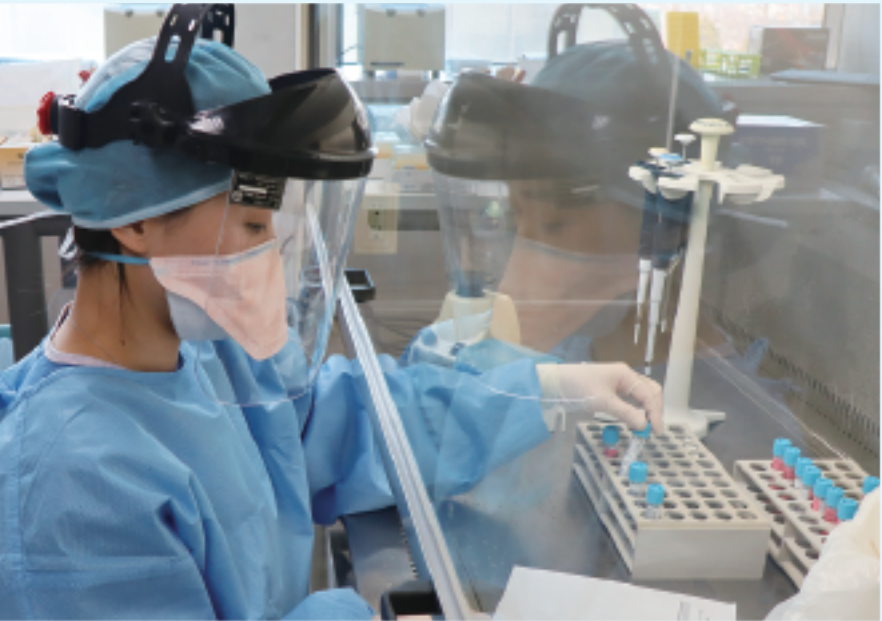
조성민 의료원장은 “중환자실 3곳 가운데 1곳을 비워 의심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다”며 “중환자실 1곳마다 20개 침상과 음압병실이 있는데, 한 개실을 통째로 비우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막고,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선별 진료와 격리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 60명이 1주일 내내 돌아가며 진료한다. 직원들은 병원 출입구를 지키며 내원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와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감염 위험은 둘째 치고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방호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진료하다 보면 숨쉬기도 어렵고, 1시간만 지나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뿐만 아니라 고글과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얼굴에 상처가 나서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언론에 종종 나오는 사진 중에 의료진들이 이마나 콧등에 밴드를 붙인 모습은 궁여지책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갗이 썰려서 피가 난다고 한다.

중증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3월 22일 기준 동국대

마스크 방호복 입으면 땀범벅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에서 근무
제 때 끼니 챙겨먹기도 어려워



코로나 조기발견과 차단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교직원 감사
후원해준 스님들 모두 고마워

학교경주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17명으로, 전국에서 최연소 확진자로 알려진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가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이 10명은 퇴원했고 안타깝게 5명은 사망했다. 특히 음압병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진료 외에도 환자에게 식사도 가져다 주고, 병실청소도 해야 한다. 일이 많으니 끼니 챙기기도 어렵다. 진료현장으로 보내진 간편식을 서서 급하게 먹거나, 그나마도 제때 먹지 못해 다 식은 밥을 먹는 날도 있다.

조 원장은 “방호복 차림으로 잠시만 일해도 녹초가 되는데, 사망감 하나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병원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원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원장 소임을 말다보니 어려움도 크다. 무엇보다 병원은 특성상 환자들과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의료진들이 환자들 몸에 직접 손을 대서 진료하기 때문에 전염속도가 더 빠르다. 분당제생병원이나 은평성모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도 그런 특성 때문이다.

“면회객으로 인해, 혹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환자 때문에 ‘안심병원’이 찢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 환자 치료로 인해 외래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운영난 속에서도 조 원장은 동국대학교병원의 활약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스님과 불자들이 있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최근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 1억 원을 쾌척한 게 대표적이다. 또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약(藥) 김치

300박스를 일산병원에 전달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도시락 300인분을 3주간 후원했다. 또 불자라고 밝힌 진영진 녹색하늘 대표는 텐탈마스크 1,500장과 손소독제를 직접 구입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하기도 했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도 성원이 답지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1,000만 원,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1,000만 원을 후원했고, 금선사 여래선원 보원스님이 1,000만 원, 간호부 보직자들도 1,010만 원을 전했다. 또 양평 소솔암, 진해 정암사 상운스님, 대구 금용사 혜선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학인 스님들도 후원했고, 태고종 (사)나누우리도 1,000만 원을 전했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과 신도들은 한라봉 10kg 100박스를 선물하기도 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스님과 불자들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초하루법회를 취소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연기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스님들 덕분이자 부처님 가피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동료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현재 의료진을 포함해 병원 모든 직원들이 현장 대응으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조기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교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 마음을 전해준 스님들에게 특히 고맙다”며 “불교계의 큰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지역민의 건강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OVID-19
현장 속으로

방호복 속으로 흐르는 땀, 서서하는 식사는 다반사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그 현장 속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또 지는 봄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코로나 전담 병동인 8층 음압병동과 야외 선별진료소에서는 감염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8층 음압병동에서는 4kg나 되는 레벨D보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연신 바쁘게 움직이며 중증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레벨D 보호복은 입고 벗는 데만 10분 이상 소요된다.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은 지 10~15분이면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 2시간이 경과하면 온몸이 땀에 젖어 거의 탈진에 이른다. 의료진 감염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음압병동에서는 의사 6명, 간호사 37명(경북지원 간호사 2명 포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휴게실에서 서서하는 식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감염병 치료의 중추역할 맡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경북 도내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11월 경북 유일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받아 격리음압입원실(3실 5병상) 설치, 2020년 1월 28일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2개소 운영), 2월 28일부터 1개소 추가설치 등 감염병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2월 19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81병동 전체를 격리음압병실로 전환하고 5실 25병상의 격리음압병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구 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증하면서 2월 27일 국민안심병원(호흡기 전용 외래 설치)으로 지정되었고, 3월 13일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고위험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하며 응급환자 음압치료 격리진료구역 5병상과 환자분류소 운영 등 지난 두 달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코로나 사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감염병에 대처할 시스템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이동석 병원장은 “사스가 발병했을 때 준비하던 중이었고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었지요.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는 저희 격리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모두 완치돼 퇴원을 했지요. 감염학과 예방의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의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 보며 보람 느껴

중증환자 전담병원이다 보니 치료에 어려움도 많았다. 요양병원에서 이송되어온 중증환자 중에 치매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컸고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아 의료진이 무척 애를 먹었다. 하지만 환자가 코로나19도 완치되고 전신상태도 호전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의 보람은 두 배로 컸다. 안영길 수간호사는 “치매 때문에 욕설과 치료 불응으로 힘들게 하던 분이 퇴원하면서 손을 꼭 잡으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으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생후 45일 된 아기가 입원했다가 38일 만에 퇴원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워낙 어린 아기라서 의료진들은 증상 유무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돌보았는데 특히 소아과 담당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의료진은 흐뭇함을 느끼기도 했다.

사명감으로 업무 과중, 피로 누적 극복해

현재 음압병동에서 37명의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한다. 업무가 과중하고 피로도가 높아 타부서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간호인력 부족으로 기존 병동의 간호사는 2교대 근무 중이다. 음압병동의 안과 바깥에서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업무 과중, 피로 누적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환자가 모두 완쾌되어 퇴원하기를 바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사명감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음압병동의 최희정 간호사는 “음압병실에 들어간 의료진은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나올 수가 없다. 음압병동에서는 진료 외에도 환자들의 식사와 청소까지 도맡아야 한다. 오직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처 위한 비상상황지원실 운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월 24일부터 이동석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9명의 의사, 간호사, 지원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지원실’을 운영하며 코로나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압병동 안에서 코로나와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면 병원 밖 선별진료소에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가 한창이다. 선별진료소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서 검체를 채취하고,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안내를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돕는다.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무렵에는 하루 40~50명을 검사하느라 녹초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20~25명이 방문해 한숨 돌린 상황이다.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조성만 파트장은 “사태가 사태인 만큼 긴장감은 높지만 우리 병원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환자 감염 예방도 철저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감염치료도 중요하지만 입원 및 내원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발열 체크, 호흡기 환자 분리 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정문을 지나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 확인을 거친 뒤에야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 기획예산팀, 총괄지원팀 등 지원부서에서는 방문객 관리를 위해 주요 출입구 통제 및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을 모니터링한다.

병원 바로 옆 건물에 호흡기 내과를 분리 운영해 기침, 가래,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자를 철저히 구분해 진료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료진은 의료진의 꿈을 키우던 초심을 되돌아보며 국가적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getty images bank

COVID-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그 이전과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은 세계인들의 삶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 및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꿔놓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선 듯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여 더욱 새롭고 중요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종 감염병의 역사와 발생 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전염병의 역사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병원성 미생물들로 인한 수많은 전염병들은 인류의 역사를 수없이 변화시켜 왔다. 페스트(흑사병, Black Death)는 6세기 중엽 로마제국을 강타하여 도시 인구의 40%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14세기에는 이 질병으로 4~5년 만에 유럽 인구의 최소 3분의 1인 약 2,500만명이 희생되었다. 소위 ‘은둔자의 병’으로 불리던 매독은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까지 과거 유럽 인구 중 15% 정도의 목숨을 잃게 했고, 17세기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문명을 정복하러 왔을 때 같이 유입된 천연두 때문에 2,000만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1918년에 처음 발생해 전세계에서 2,500만~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이나 페스트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린다. 2002년 12월 처음 등장했던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는 불과 며칠 안에 전 세계 30여개국으로 퍼진 후 2003년 7월에 종식되었고,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는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심각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 질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요인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요인을 크게 ❶ 지구온난화 등 환경의 변화 ❷ 해외여행 증가 등 인간 행태의 변화 ❸ 도시화 등 사회적 요인의 변화 ❹ 음식의 대량생산과 소비 체계에 따른 식품관련 요인 ❺ 항생제 남용 등 보건의료요인 ❻ 병원체의 적응과 변화 ❼ 공중보건활동의 감축 등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은 인수공통감염병인데, 따라서 지구 온난화와 같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기온이 증가하여 모기와



getty images bank

진드기의 서식환경이 변하며 이들이 매개하는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밀렵 개발 및 삼림 파괴 등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물-인간 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매일 수만명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전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된 인간 행태의 변화 역시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의 이동은 각 지역의 풍토병이나 내성균의 이동과 같이 이루어지며, 사람뿐 아니라 정상적인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야생 동식물의 교류 역시 신종 감염병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점차 도시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서 인구밀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중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등의 면역저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보다 신종 감염병이 인간에게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종 감염병의 대비와 대응 방안

신종 감염병의 출현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언제 어디에서 출현할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알기도 어렵다. 즉,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선제적

으로 대비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유행 초기에 적절한 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재난 시 언제든지 가동할 있도록 공공의료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전문인력을 훈련 및 교육하고,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대하며 각 의료시스템별로 감염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의 인식 및 방역 주체로써의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은 이미 수십 번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생활 방역을 현실에 맞게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외로 여행/출장 등이 계획되어 있을 때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혹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각종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귀국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

전문진료분야
감염질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병원감염, 예방접종,
해외여행상담

COVID-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어린이 ·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처음으로 접하고 있고, 초 · 중 · 고 학생들은 3월이 되었지만 학교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개학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친구들을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죠. 이런 생활이 약 3개월간 지속되다 보니 진료실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들이 콧물,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 청소년도 코로나19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까요?

Q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A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SARS-CoV2’ 라고 이름 지어진 바이러스가 코, 목,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병을 말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심각한 호흡곤란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열, 기침, 목 아픔(인후통), 숨이 참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어린이 · 청소년이 자주 걸리는 코감기, 목감기(인후염, 편도염 등), 기관지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폐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죠.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이런 호흡기 감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Q 코로나19, 왜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A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처음 보고된 병이어서 병의 경과나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보는 중이고, 백신도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적습니다. 병에 대해서 아직 준비된 것이 없고 걸렸을 때 심각하게 진행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코로나19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Q 어린이 · 청소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A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여러 나라의 통계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환자

중 어린이 · 청소년의 비율은 어른보다 적습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자들 중 19세 미만은 6.7%였습니다. 10세 미만의 환자는 1.3%이고 19세 미만 환자에서 위중하거나 사망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문에서는 어른만큼 어린이 · 청소년도 코로나19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어른에 비해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코로나19 환자와 마주칠 확률이 낮아서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것뿐이죠. 또한 어른과는 다른 면역 체계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의 비특이적인 효과, 다른 급성 호흡기 감염 후 생긴 교차면역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저 질환이 없는 것도 도움이 되어서 건강한 어린이 ·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들이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 눈이나 코, 입에 닿을 때 감염됩니다. 침방울이 손에 묻어 있는데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에 감염되죠.

따라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외출 자제, 마스크 쓰기 등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 사이까지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 가지 않기,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리고 얼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쓰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른들의 예방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린이 · 청소년은 이러한 것을 지키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린이 · 청소년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과 마스크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함께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예방 수칙을 지켜준 덕분에 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진짜 개학을 해도 안전한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내 보아요.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유리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 감염 질환,
1차성 면역 결핍 질환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양손바닥
흐르는 물에 비누를 손바닥에
덜고 문질러 거품을 낸다.

2

손등
양쪽 손등을 문지른다.

3

손가락 사이
손가락을 끼워
끼어 문지른다.

4

손가락 뒷면
손가락 뒷면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지른다.

5

엄지손가락
한손에 엄지를 거머쥐어
회전하며 문지른다.

6

손톱 끝
손톱을 손바닥에
마찰하듯이 문지른다.



getty images bank

COVID-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매일같이 접하며 마음이 울적 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 자신,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는 등의 평소 즐기던 여가생활과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며 답답함이 커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이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신체의 병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의 건강까지 좀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삶에서 얻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재난정신건강의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마음건강지침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 마음건강지침을 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성민 교수

전문진료분야
노인정신장애, 치매, 수면장애,
불면증, 주간졸림증,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 일반정신의학



getty images bank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퍼지는 위기상황에서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경우 우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서 면역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되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질병과 관련된 옳고 그른,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정보의 선별에 우선순위를 두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SNS와 뉴스를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저 집단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 사람 또는 특정한 집단에게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과 집단에 대한 인신 공격과 신상 노출은 트라우마로 2차 피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이나 수면의 어려움, 신체적인 긴장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있다면 특히 불면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 때문에 마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기적으로 호전되기를 바랄 경우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해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불확실함을 그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 위기 상황에서는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운동, 사회적 만남 등 자신이 좋아하던 기존의 사회적 교류와 업무 등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7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활동을 늘려 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활동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로나19는 고령자,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에게 특히 높은 위험성을 보입니다. 내 주변의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자가격리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타적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심리적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으로 달려가는 수백 명의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악플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

신길조 교수의 한방(韓方) 건강

면역력 강화

20세기 초기에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데, 21세기 초에 다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건강과 위생 관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재와 음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학의 질병관 및 치료관은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환경과 자연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예방법을 중시하여, 일상 생활의 규칙성과 절제성을 강조한다. 미병(未病)이라 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체 내의 정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평상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병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 속의 모든 방법-음식, 호흡법, 바른 생활습관-들을 통틀어 양생(養生)이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가진 삶의 근본 에너지를 기(氣)라고 한다. 이 기(氣)는 신체의 내외부에서 끊임없는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다. 호흡을 통해 탁한 기운은 밖으로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는 폐를 통해 신체의 내부로 흡입되는데, 음식 섭취를 통해 흡수된 음식의 기운과 합해져서 인간 활동의 근원인 원기를 형성한다고 한다.

동양의 호흡법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는 현대의학의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잘 알려져 있으며, 약재 등은 현대에서도 식재료나 차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양생을 위한 음식은 향기가 그윽하고 맛은 심하게 쓰거나 역하지 않아야 하는 명확한 전제가 있는데, 현대인은 불규칙한 식사, 무리한 다이어트,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설탕, 고칼로리 음식,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으로 건강한 음식 섭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인체가 허한 상태를 기혈음양으로 구분하는데, 몸이 찬 사람은 기(氣)와 양(陽)을, 몸이 더운 사람이나 찬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혈(血)이나 음(陰)을 보하는 약재를 차나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보기(補氣) 약재로는 인삼, 둥글레, 까치콩, 영지, 오가피를, 보양(補陽)하는 약재는 두충, 동충하초, 오미자, 부추, 산초, 계피, 건강, 양고기, 보음(補陰)하는 약재로는 더덕, 구기자, 흰목이버섯을, 보혈(補血)하는 약물로는 오디, 산수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마, 까치콩, 작두콩, 둥굴레, 대추, 울무, 더덕, 청국장, 연자, 연잎, 작두콩, 맥아, 매실을, 폐(肺)기능이 약한 사람은 더덕, 흰목이버섯, 동충하초, 배, 은행, 도라지를 먹으면 좋다.

식보(食補)는 사계절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하는데, 봄에는 기(氣)의 발생에 도움이 되는 향기가 나는 산나물, 채소를 위주로 먹으며, 여름철에는 신진대사 유지를 위한 열량이 비교적 낮으므로 보(補)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가을철에는 건조하여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므로, 폐를 보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며, 겨울철은 추위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물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약리학적으로 밝혀진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몸이 찬 사람은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을, 몸이 더운 사람은 통곡물, 베리류(블루베리, 체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녹차, 콩, 갯깻잎을 들 수 있다.

면역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를 마늘, 양파와 함께 끓이거나 삶아 먹거나, 두부, 청국장, 낫토 등도 면역력 증강에 좋은 음식이다.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내과

신길조 교수

전문진료분야
사지냉증,
심장질환, 어지럼증,
중풍(뇌경색, 뇌출혈),
당뇨병, 비노생식기질환,
내과순환계질환,
소화기질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출처 질병관리본부 2020. 3. 24. 기준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병관리본부
KCDC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월)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2

질병관리본부
KCDC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효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5

질병관리본부
KCDC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6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3

질병관리본부
KCDC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4

질병관리본부
KCDC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중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8

본 내용은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2019. 10. 28~12. 20)한 동국대학교병원
‘치유 & 사랑’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에서
‘치유상(2등상)’을 수상하신
구정희 님의 글입니다.

14년의 기적



제 남편은 저희부부가 결혼 9년이 되던 해(2006년 10월 19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2019년 10월 19일을 맞아 투병생활 1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쓰러진 당시 수원에 있는 A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던 의사선생님이 잠시 후 나오셔서 뇌에서 가장 깊은 ‘숨골’을 다쳐서 수술조차 할 수 없고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술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숨골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호흡과 심장기능을 조절하고 자율신경이 모여 있는 곳) 큰 병은 거의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술조차 안 되고 할 수도 없으니 장례준비를 하라는 말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생활 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 열심히 일해 생활기반을 잡은

후 임신하기로 하고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의 생활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붓하게 행복을 꿈꾸며 살아 갈 날을 기대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수원의 A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의 고비를 넘기고 한 달 반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뒤 일반병실로 와서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 후 병원을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말하는 재활난민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발병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9년 5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을 오게 되었고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님과 한방병원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남편이 너무 중요한 부위를 다친 중환자인 데에다 욕창까지 생겨 입원을 거절당한 병원

도 많았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님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재활치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님은 환자사랑과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셔서 14년 전 응급실에서 죽음의 기로에 섰던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돼 주셨습니다. 아직은 병상에 있어도 14년이란 시간을 이겨온 것으로도 기적이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에서의 따뜻하고 감사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호흡이 약하여 호흡기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남편과 남편처럼 병상에서 투병하는 환자와 보호자

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럴 즈음인 2009년 11월, 병문안을 온 남편 직장 동료 분에게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KBS ‘아침마당’의 ‘가족이 부른다’라는 프로에 출연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료 분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저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제 사연이 채택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인 이상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시청자들의 ARS전화로 점수를 얻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남편이 입원한 한방병동에서부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많은 병동에 퍼졌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응원 전화로 높은 점수를 얻어 저희 팀이 1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승, 3승을 거쳐 연말결선까지 가서 준우승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동에서는 서로 기쁨의 눈물로 축하하며 울고 웃고 격려하고 힘을 얻었던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대여료가 너무 비싸서 남편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환자나 경추를 다친 환자들처럼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매달 사용료 50만원~70만원(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름)이 너무 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병원비, 간병비, 부대경비, 그리고 호흡기 대여료까지 너무 큰 부담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KB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호흡기 대여료를 의료 보험 적용을 해 달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 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에서 남편의 병상 생활을 촬영하여 방송이 되었고, 동국대학교 한방병동 환자, 보호자, 그리고 재활병동 환자, 보호자들과 여러 지인들의 서명 운동으로 500명의 서명 자료와 저의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오랜 시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안건이 통과되어 지금은 호흡기를 부담 없이 사용하며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호흡기를 10년 달고 있던 남편이 한 번이라도 호흡기 없이 숨을 쉬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통했는지 동맥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호흡기를 떼게 되었고, 어느덧 호흡기를 떼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숨골 환자가 호흡기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안 되던 남편은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님 덕분에 연하 치료 시간에 얼음 삼키기를 시작

으로 요플레 먹기 그리고 연하 1단계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환자에 대한 열정 덕분에 오랫동안 뱃줄(PEG)로 음식을 먹었지만 입으로 먹는 첫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강 했을 때도 B형 간염 보균자여서 늘 간 상태에 대해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쓰러진 후 장기 환자가 되어 약 복용을 오래 하다 보니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2013년 10월 재활치료 도중 담낭에 염증이 심해져서 황달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온몸과 눈동자 까지 전부 노랗게 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과 의사선생님이 그날 밤이 고비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무사히 다음날 아침까지 남편은 잘 견뎌주었고 아침 일찍 첫 수술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수술을 해주신 외과 오민구 교수님께서 하루 두 번씩 회진을 오셔서 남편을 관심 있게 살펴 주셨습니다. 연륜도 많으시고 직책도 높으신 분인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으시고 혼자 오셔서 남편의 출혈 상황과 상처부위 드레싱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살펴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가슴 아래 사선의 흉터를 보면 고생했을 남편이 잘 이겨 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오민구 교수님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집니다.

이제는 남편이 건강하게 일어나 재활환자들을 대표해서 오랜 시간 병상에서 겪었던 투병생활을 널리 알리는 그런 기적의 날이 오기를 늘 기도하며, 또한 출연했던 KBS ‘아침마당’에 다시 나가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에서 있었던 작은 기적의 이야기와 가능성 없는 환자를 오랜 기간 기다리며 사랑과 격려로 치료해주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 교수님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 관계자분들을 많이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늘 환자를 위한 최고의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한방병원 최고입니다! 🌸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을 펼쳐준다!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원 명 스 님
[봉은사 주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Q 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이 격리 되자, 지구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연환경은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는 결국 자연과의 공존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파괴된 자연은 각종 질병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 나올 것이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멈춰 서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만물이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는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바로 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인류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글 대외협력홍보팀
사진 박재완 기자

Q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A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의 기본은 공동체정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함께 공존하는 파트너로서가 아닌 그저 이용하고 개발하는 도구로 여겨온 경향이 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과 배타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보니 화합과 상생이 쉽지 않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이 화두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는 한 몸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자비를 베풀면, 자연도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Q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걱정과 우울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불교의 수행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은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수행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줌으로써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고 마음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면 면역체제도 강해지는 것이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요즘 시대에 불교의 수행은 가장 좋은 면역력 강화 방편입니다. 제 어머니가 여러 가지 병이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명호를 염송하시라고 권해 드렸는데, 매일 꾸준히 염송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통증도 크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상당히 편하게 요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염송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이 이처럼 사람 몸과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요즘 같은 시기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새겨야 할 부처님 말씀 한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A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외식제연(外息諸緣) 내심무천(內心無喘) 심여장벽(心如牆壁) 가이입도(可以入道)’입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험쩍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을 쉬라는 말은 그동안 살아 온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험쩍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의 부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주위를 돌아보고, 번뇌망상을 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마음이 굳건하면 이겨낼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장벽과 같다면 인류는 바이러스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은 의료진입니다. 이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병을 치료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몸을 치유한다면, 의료진은 몸을 치유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니, 그런 뜻에서 의료진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고군분투는 큰 공덕이 되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1975년 월정사에서 능혜스님 은사로 출가
1977년 탄허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9년 고암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이후 용주사 중앙선원, 불국사 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 칠불사 운상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등에서 정진
2000년 동해 삼화사 주지
2013년 조계종 호법부장
2014년 조계사 주지
현재 봉은사 주지, 동국대학교 이사

꽃에서 뿌리까지 귀한 식재료 면역력에 좋은 연밥상



글·사진
전통음식연구가 류현미

화려하게 군락을 이룬 연꽃과 만나면 발길을 떼기가 어렵다. 중국 북송 시대의 유학자 주돈이는 <애련설>에서 연꽃을 '군자'라 했다. 이는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깨끗하고 향기로우며 세상의 풍파에 얽매이지 많은 군자 같은 풍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탐스럽고 화려한 연꽃은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연은 꽃에서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재료이다. 어렸을 적 방학 때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의 기억 중 연잎에 관한 것이 많다. 제일 먼저 비 오는 날 연잎 위로 마치 옥구슬처럼 빗방울이 흘러내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연잎을 우산처럼 쓰고 다녔던 추억도 있다. 커다란 잎과 진흙 위에서 피워내는 하얗고 탐스러운 꽃의 신비로운 이미지 때문인지 연잎에 대한 기억은 유난히 생생하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부드럽게 간 연잎을 밀가루에 반죽한 후 다시 잘게 썬 연잎, 호박과 감자를 함께 넣어 만든 연잎수제비가 떠오른다. 추억의 연잎수제비에 활짝 핀 연꽃을 올리니 오감이 즐겁고 마음 한 자리에 연향이 그윽하다.

요리를 위해 연잎을 만질 때면 늘 느낌이 묘하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자란 연잎으로 더위를 이겨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잎차를 오래 마시면 늘지 않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연잎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동의보감>은 연잎의 효능에 대해 '하엽은 성질이 치우침이 없으며 맛은 쓰고 독이 없다. 혈리를 치료하고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나쁜 피를 제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빈혈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지기 쉬운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며 제철에 나는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로 추천한다. 연잎은 면역력을 키울 뿐 아니라 향균 작용도 탁월하다.

약이 되는 연잎밥을 만들어 보자. 연잎에 찹쌀과 검은콩, 연자육, 붉은팥, 강낭콩, 대추, 은행과 소금물을 넣어 찌서 고정 후 찐 연잎밥은 여름에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 연잎의 향이 냄새를 잡아주고 고기 요리에 다양하게 응용하면 좋다. 연꽃차를 연지에 우려내고 차를 음미하다 보면 까칠한 입안에 차의 맛은 아리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먹는 연꽃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연밥의 썩인 연의는 껍린(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 연밥은 연자육이라 불리며 약재로 쓰이는데, 오장

육부의 기를 보강하는 동시에 정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연꽃전을 추천하고 싶다. 연꽃전은 연꽃을 한 잎씩 떼어 밀가루를 입혀 지지는데, 손님이 오셨을 때 상에 올리면 별다른 장식이 없어도 무척 품격 있는 상차림이 된다. 여름의 풀 향기가 진하게 느껴질 때, 싱그러운 연으로 밥상 위의 여름을 초대해 보자.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참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살자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불가에서는 공양, 즉 밥을 먹기 전 두 손을 모으고 '오관계(五觀偈, 불가에서 공양할 때 외우는 다섯 구의 계송)'를 합송한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약으로 삼아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오관계를 외우다 보면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도 그 속에 깃든 여러 인연들이 수고로움을 생각나게 하고 고마움에 절로 경건해진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연근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연뿌리로 죽을 쑀어 먹으면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염에 효과가 있다. 몸이 아플 때 연근을 이용한 음식이 두루 좋은데, 칼에 베였거나 코피가 날 때 연근즙을 탈지면에 적서 상처를 눌러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정과로 먹기도 한다. 색색의 음식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고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오방색을 담은 연근 물김치와 함께 담아내면 색깔도 곱고, 감초 물과 아삭아삭한 연근의 식감이 입맛을 돋운다. 연근을 좋아하지 않던 아이들도 색색으로 물들인 연근을 보면 맛보고 싶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잎과 연근을 함께 넣어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 멥쌀가루에 연잎 가루와 소금, 물을 넣고 고루 비벼 섞어서 체에 내린 뒤, 색을 들어 졸인 연근과 완두, 다진 호두와 함께 찌는 음식이다. 케이크나 빵보다 담백하고 색도 곱다. 떡을 만들며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해본다.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탁한 것을 정화시키는 연꽃처럼, 오염되고 스트레스 많은 도시의 환경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늘 건강하기를... 🌸

여름날의 보물찾기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에 자리한 법주사는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 포함된 9개의 사찰 중 하나로 국보 3점과 보물 12점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날에도 법주사에 만나는 보물찾기는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해줄 만큼 즐거움을 준다.

현존하는 유일한 5층 목탑을 만나다.

법주사로 가는 길은 속리산 자연 관찰로로 이어진다. 우거진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싱그럽다. 숲길에 호젓하고 시원하니 무더운 여름날에도 걷는 재미가 있다. 숲 끝에 다다르면 왼쪽으로 법주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천왕문을 지나면 법주사의 상징 중 하나인 국보 제55호 팔상전이 눈앞에 나타난다. 조선 시대 정유재란 당시 불에 타 없어진 법주사는 사명대사에 의해 재건된다. 이때 팔상전도 건축되기 시작하여 선조부터 인조 때까지 2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 그린 그림을 봉안하고 있어서 ‘팔상전’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팔상전은 단청을 새로 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팔상전의 위엄찬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고, 수수한듯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다. 겉보기엔 일반적인 목조 건물인 것 같은데 ‘탑’이라고 하는 이유는 1968년 해체 복원 당시 탑에서 볼 수 있는 사리와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팔상전은 외관상 5층 구조로 건설되어 있으나, 내부는 3층까지 뚫려있는 통층식 구조이다. 팔상전 안에 들어서면 머리 위로 오래된 대들보와 빗바랜 단청이 얹혀있다. 유구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

불교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쌍사자.

법주사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는 국보 제5호로 지정된 쌍사자 석등이다. 쌍사자 석등은 720년 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석등의 하단부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두 발로 상대를 받치고 있다. 하대의 돌기둥 자체를 사자 모양으로 깎았고, 가슴 부분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어있는 공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생동감과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쌍사자의 무늬와 갈기를 비롯하여 팔과 다리의 근육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조각미가 돋보인다. 쌍사자 석등은 다른 나라 석등에서는 같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사람이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쌍사자가 깨어나 법주사를 지키며 불교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가만히 거닐며 만나는 보물들

팔상전과 쌍사자 말고도 법주사 경내에는 볼거리가 많다. 급할 것 없이 천천히 거닐며 법주사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이 좋다. 국보 제64호 석련지는 이름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돌로 만들어진 연꽃 모양의 연못이다.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조각되어 있다. 석련지는 성덕왕 19년(72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95m 둘레 6.65m에 이를 만큼 큰 크기이다. 연꽃이 새겨진 상단 부분이 중단 부의 받침돌보다 꽤 큰 편이라 비대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교한 장인들의 숨씨 덕에 균형미가 느껴진다. 석련지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세련미가 있다.



보물 1417호로 지정된 석조화견보살 입상은 213cm 높이로 화견보살이 곧게 서서 두 팔로 향로를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화견보살은 몸과 어깨가 타는 고행이 오더라도 향로 공양을 쉬지 않는 보살이다. 이 역시 신라 성덕왕(720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마모가 심한 상태라 자세히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법주사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찰의 정취를 느끼고 있을 때 스님 몇 분이 나오셔서 목어와 법고를 치셨다. 법고는 북소리를 통해 불법을 중생들에게 전하여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법고 소리를 듣는다. 아늑한 사찰의 정취에 북소리를 더하니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잊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법주사를 떠났다. 법고 소리 덕분에 법주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



우리 함께 DUMC

DUMC

앞선 의술과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함께 합니다.

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박 성 연

전문진료분야

감염질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열병, 에이즈, 병원감염,
예방접종, 해외여행상담

경력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장

[논문]

- Park SY, Kim T, Choi SH, Jung J, et al. Impact of health care-associated community-onset cellulitis in Korea: a multicenter study.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19 Mar;38(3):545-552.
- Park SY. Procalcitonin to Guide Antibiotic Therapy for Critically Ill Patient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9 Apr 15;34(14):e122.
- Park SY, Park YS, Park Y, et al. Severe vivax malaria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2000 to 2016. Travel Med Infect Dis. 2019 Jul - Aug;30:108-113.
- Park SY, Kim JY, Kwon JS, et al. Relationships of varicella zoster virus (VZV)-specific cell-mediated immunity and persistence of VZV DNA in saliva and the development of postherpetic neuralgia in patients with herpes zoster. J Med Virol. 2019 Nov;91(11):1995-2000. 외 다수

[학회발표]

- Park SY, et al. The role of intravenous colistin for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bacteremia ASM Microbe/ICAAC 2016, Boston, June, 16 - 20 (Poster session, abstract FRIDAY - 434)
- Park SY, et al. Persistence of varicella zoster virus in saliva and postherpetic neuralgia in patients with herpes zoster. 27th ECCMID 2017, Vienna, Austria, (Paper Poster session, presentation number 4248).
- Park SY, et al. Severe Vivax Malaria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2000-2016. 28th ECCMID, Madrid, Spain (Oral presentation, abstract number 2544) 외 다수



최 승 임

전문진료분야

감염질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병원감염, 예방접종,
해외여행상담

경력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 서울아산병원 인턴
-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
-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전임의

[논문]

- 2018, Infectious Diseases, 'Diagnostic usefulness of the QuantiFERON-TB gold in-tube test (QFT-GIT) for tuberculous vertebral osteomyelitis'
- 2018, The Americ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Case Report: Use of Plasma Exchange Followed by Convalescent Plasma Therapy in a Critically Ill Patient with Severe Fever and Thrombocytopenia Syndrome-Associated Encephalopathy: Cytokine/Chemokine Concentrations, Viral Loads, and Antibody Responses 외 다수

[학회발표]

-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 poster presentation
- 2017 ASM microbe poster presentation
- ISAAR & ICIC poster presentation
- 2018 ISSSI poster presentation
-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연발표 외 다수

2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김 경 아

전문진료분야

당뇨병,
갑상선질환,
내분비질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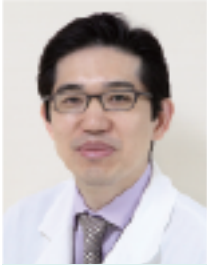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 서울삼성병원 전임의 (당뇨병 및 내분비내과 분야)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 Vanderbilt University, USA

[논문]

- HK Park, KA Kim et al. Effects of Dapagliflozin Compared With Glimepiride on Body Composi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Inadequately Controlled With Metformin (BEYOND). ClinicalTrials.gov Identifier: NCT02564926. (Manuscript in preparation)
- Lee SE, Park JH, Kim KA, Kang YS, Choi HS. Association Between Sarcopenic Obesity and Pulmonary Function in Korean Elderly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alcif Tissue Int. 2020 Feb;106(2):124-130
- JC Bae, KW Min, YH Kim, KA Kim, EG Hong, CY Park, S Han, BS Cha. Efficacy and safety of fixed-dose combination therapy with gemigliptin (50 mg) and rosuvastatin (20 mg) compared with each monotherap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dyslipidaemia (BALANCE): A multicentre,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phase 3 trial. Diabetes Obes Metab. 2019 Jan;21(1):103-111 외 다수

[학회발표]

- Effect of liraglutide 3.0mg treatment on antipsychotics associated weight gain. 2019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 외 다수



최 한 석

전문진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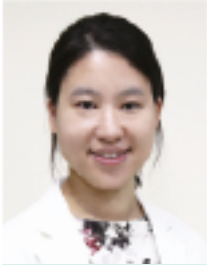
갑상선, 당뇨,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골다공증클리닉

경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박사
- 신촌세브란스병원 전공의
- 신촌세브란스병원 전임의
-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조교수
- 미국 연수 UC San Francisco USA. Visiting Scholar

[논문]

- Choi Han Seok. Recent Update on RANKL Inhibitor.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93(3) 252, 2018.
- Hee-Bok Kim, So Hyun Limm Chang Gun Cho, Han Seok Choi. Influence of Vitamin D Deficiency on Progression of Experimental Otitis Media in Rats.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33.2.296, 2018.
- Ju-Hyun Park, In Young Hong, Jae Woo Chung, Han Seok Choi. Vitamin D status in South Korean population: Seven-year trend from the KNHANES. Medicine 97(26):e11032, 2018.
- You BH, Chin YW, Kim H, Choi HS, Choi YH. Houttuynia cordata extract increased systemic exposure and liver concentrations of metformin through OCTs and MATEs in rats. Phytotherapy Research 32(6), 2018.
- Choi HS1, Min YK2, Byun DW3, Hahn MH4, Kim KM5, Kim BJ6, Oh KW7.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Task Force Report: Perspectives on Intermittent High-dose Vitamin D Supplementation. J Bone Metab. 24(3):141-145, 2017. 외 다수



이 승 은

전문진료분야

갑상선, 당뇨,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경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공의
-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임상강사

[논문]

- Lee SE, Baek JY, Han K et al., Insulin Resistance Increases Serum Immunoglobulin E Sensitization in Premenopausal Women. Diabetes Metab J. 2020
- Lee SE, Park J-H, Kim K-A et al., Association Between Sarcopenic Obesity and Pulmonary Function in Korean Elderly: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alcif Tissue Int. 2020
- Lee SE, Jang JE, Kim HS et al., Mesenchymal stem cells prevent the progression of diabetic nephropathy by improving mitochondrial function in tubular epithelial cells. Exp Mol Med. 2019
- Lee SE, Han K, Baek JY et al., Association Between Diabetic Retinopathy and Parkinson Disease: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J Clin Endocrinol Metab. 2018 외 다수

[학회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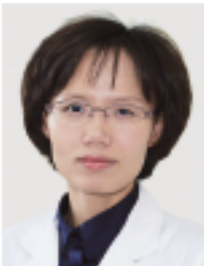
- Effect of liraglutide 3.0mg treatment on antipsychotics associated weight gain. 2019 ICDM in Seoul, Korea.
- Plasmalogens regulate macrophage polarisation and protect against adipose tissue inflammation in high fat diet-fed mice. 2016 EASD Annual Meeting in Munich, Germany. 외 다수

3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진료분야

당뇨병,
갑상샘질환 및 기타 내분비 질환



이 영 실

경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박사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전공의 수료
-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임의
- 동국대학교포항병원 내분비내과과장
- 現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내분비내과 분과장
- 現 동국대학교경주병원 Pilsil 차장
- 現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

- Negative Association of Hepatitis B Virus With Hearing Impairment. Am J Audiol. 12:27(3):324-332, 2018.
- Association between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 Diabetes Res Clin Pract. 140:18-26, 2018.
- Efficacy and safety of sitagliptin/metformin fixed-dose combination compared with glimepirid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Diabetes. 9(4):412-42, 2017.
- Association of hearing impairment with insulin resistance, β -cell dysfunction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before onset of diabetes. Diabet Med. 33(9):1275-82, 2016.
- Association of periodontitis with insulin resistance, β -cell function,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before onset of diabetes. Endocr J. 62(11):981-9, 2015.
- Association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with low bone mass in postmenopausal women. Endocrine. 42(2):423-9, 2012.
- Relationship of 11 β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and hexose-6-phosphate dehydrogenase gene polymorphisms with metabolic syndrome and type 2 diabetes. Endocr J. 58(11):949-59, 2011.
- A case of Sheehan's syndrome that manifested as bilateral ptosis. J Korean Med Sci. 26(4):580-2, 2011. 외 다수

전문진료분야

당뇨병, 갑상선질환,
대사증후군,
기타 내분비질환



문 성 수

경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 경북대학교병원 수련의 및 내과전문의
- 경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임의
- 경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임상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의과대학 당뇨병증 연구교수 및 제이콥스 메디컬센터 임상연구
- 現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現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보건진료센터장

[논문]

- 7-Linolenic Acid versus α -Lipoic Acid for Treating Painful Diabetic Neuropathy in Adults: A 12-Week, Double-Placebo, Randomized, Noninferiority Trial. Diabetes Metab J. 2019 Nov 4.
- Medical Treatment with Somatostatin Analogues in Acromegaly: Position Statement. Endocrinol Metab (Seoul). 2019 Mar;34(1):53-62.
- Negative Association of Hepatitis B Virus With Hearing Impairment. Am J Audiol. 2018 Sep 12:27(3):324-332.
- Association between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 Diabetes Res Clin Pract. 2018 Jun;140:18-26.
- Acute anti-obesity effects of intracerebroventricular 11 β -HSD1 inhibitor administration in diet-induced obese mice. J Neuroendocrinol. 2018 Mar;30(3):e12580.
- Intraventricular administration of Tenebrio molitor larvae extract regulates food intake and body weight in mice with high-fat diet-induced obesity. Nutr Res. 2017 Aug;44:18-26.
- Association between Blood Mercury Level and Visceral Adiposity in Adults. Diabetes Metab J. 2017 Apr;41(2):96-98.
- Association of hearing impairment with insulin resistance, β -cell dysfunction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before onset of diabetes. Diabet Med. 2016 Sep;33(9):1275-82.
- Algae Undaria pinnatifida Protects Hypothalamic Neurons against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through Akt/mTOR Signaling. Molecules. 2015 Nov 25;20(12):20998-1009.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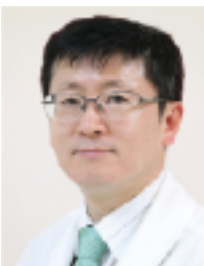
4

동국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진료분야

화병, 우울증, 불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 건망증,
치매, 뇌전증



구 병 수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동국한방병원 전공의
- 동국대학교 동국한방병원 전임의
- 동국대학교강남한방병원 교수
- 前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병원장

[논문]

- Borneol alleviates oxidative stress via up-regulation of Nrf2 and Bcl-2 in SH-SY5Y cells, Pharmaceutical Biology, 51(3), 30-35, 2013.Jan
- Effects of treadmill exercise on the recovery of dopaminergic neuron loss and muscle atrophy in the 6-OHDA lesioned Parkinson's disease rat model, Korean J Physiol Pharmacol, 16(5), 305-312, 2012 Oct
- Inhibition of JNK/dFOXO pathway and caspases rescues neurological impairments in Drosophila Alzheimer's disease model, Biochem Biophys Res Commun, 419(1),49-53, 2012 Mar 2
- SuHeXiang Wan essential oil alleviates amyloid beta induced memory impairment through inhibition of tau, Am J Chin Med. 39(5),917-932, 2011
- A modified formulation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improves memory impairment and reduces A β level in the Tg-APPswe/PS1dE9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J Ethnopharmacol., 137,783-789, 2011 Sep. 1
- effect of DHEA on recovery of muscle atrophy induced by Parkinson's disease, Korean Acad Nurs, 41(6):834-42, 2011 Dec
- Chloride channel conductance is required for NGF-induced neurite outgrowth in PC12 cells Neurochem Int, 56(5):663-9, 2010 Apr
- 배양대뇌신경세포 저산소증모델에서 반하에 의한 유전자표현의 변화. 생명과학회지: 30(4) 880-892, 2009.12. 외 다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진료분야

각종 스트레스 질환, 경련성,
공황장애, 두통, 불면,
불안장애, 우울증, 치매,
파킨슨, 화병



김 근 우

경력

- 동국대한방병원 전공의 수료
- 前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
- 前 성남시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 前 한의사 국가고시 위원
- 前 경기도 한의사회 학술부회장
- 前 대한한방신경정신과 학회장
- 現 노인요양보험 중앙심의위원
- 現 동국대학교 한의대 학과장
- 現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 現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신경정신과 교수
- 前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장

[논문]

- 명상프로그램(α version) 시행 전후의 사상체질별 심리척도 및 HRV 변화 연구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1~12 (2014.03.30)
- 古代 醫案에 나타난 불교사상 연구-의료윤리와 정신치료를 중심으로-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109~121 (2013.03.30)
- 東醫實鑑 十種頭痛을 중심으로 한 두통 처방의 轉寫에 대한 연구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129~146 (2012.06.30)
- 심신치유를 위한 불교의학, 사상의학,한의학에서의心の 연구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 1~15 (2012.03.30)
- 儒家思想에 바탕을 둔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149~168 (2009.09.30)
- 方藥合編에 수재된 神經精神科 관련 주요 處方에 대한 研究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p.89 ~106 (2009.03.30)
- Illite improves memory impairment and reduces A β levelin the Tg-APPswe/PS1dE9mousemodelofAlzheimer'sdiseasethrough Akt/CREB andGSK-3 β phosphorylationinthebrain -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p.69-77 (2014. 11)
- Alteration in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after treatment of mice with herbal mixture containing Euphoria longana, Houttuynia cordata and Dioscorea japonica - DARU-JOURNAL OF PHARMACEUTICAL SCIENCES p.1-11 (2014. 11)
- Cryptotanshinone from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hibits Sodium-nitroprusside-induced Apoptosis in Neuro-2a Cells - PSYCHOTHERAPY RESEARCH p.1211~1,219 (2012.08.01) 외 다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신경과 김동역 교수,
‘뇌혈관계 영상 해부학 저서’ 해외 출판

신경과 김동역 교수(국가참조표준센터 한국인 뇌MR영상데이터센터 센터장)가 최근 ‘뇌혈관계 영상 해부학 아틀라스(Pocket Anatomy of Cerebrovascular Imaging and Topography)’를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월드 사이언티픽(World Scientific)’을 통해 발간했다.

김동역 교수는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 허혈뇌지도, 고해상도 뇌혈류영역 지도, 뇌 경색 부피 참조표준 도판 등을 개발했으며, Stroke, Brain, JAMA Neurology 등 국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왔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신장암 수술환자, 비만도와 수혈 여부도 주요 예후 예측인자’ 연구결과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환자의 비만도 및 수술 관련 수혈 여부 등의 임상학적 인자도 신장암 수술 환자의 예후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자(교신저자)인 김형석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관찰할 때 예후 예측 및 신장암에 대한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환자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각각 국내 비뇨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비뇨임상연구’ 2020년 3월호 및 외과계열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중 하나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 2020년 4월 3일 온라인판 등 저명한 SCIE급 저널에 연달아 게재되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외과 김성룡 교수, 고난도
‘복강경하 췌-십이지장 절제술’ 성공

외과 김성룡 교수가 경기북부 최초로 ‘복강경하(유문보존)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연이어 성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고난도 암 수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췌장 두부 질환과 담도 질환에서 시행되는 수술로 절제술과 문합술 모두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외과 김성룡 교수는 “최근에 여러 병원에서 장을 연결하는 문합술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자 로봇 수술을 접합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절제술과 문합술을 모두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는 것은 초고난도 수술로 국내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후 로봇이 도입될 경우 적응증을 높여 복합적인 수술이 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지도법사 능지 스님 부임

지난 4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 신임 지도법사에 능지 스님이 위촉됐다.

새로 부임한 능지 스님은 앞으로 고된 치료를 견디는 입원 환우들의 건강 발원 예불과 병상 생활의 고민 상담, 호스피스 병동 임종 기도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불 및 정기 법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법당은 환자뿐만이 아닌 교직원 모두에게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니, 부처님 품 안에서 불심으로 마음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도 CS우수부서 시상식

지난 3월 19일, 2019년 한 해 동안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CS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9년도 CS우수부서는 총 3개 부서로, 진료부에서는 외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간호부는 111병동, 행정처에서는 원무팀이 선정됐다.

CS우수부서 선정은 진료개시시간 준수율, 자체 환자경험평가 점수, MOT(고객접점) 모니터링 점수, 친절직원 추천 건수를 점수화하여 직종별로 우수부서를 선발했다.



2020년 의학 연구 설명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10일 5층 대강당에서 2020년 대형 국책과제 및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교류 및 연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연구 제도 및 지원 계획,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기초연구사업 선정자 과제 발표, 대외 발표 논문 소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해원 병원장은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증대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한방으로 건강하게’ 할인 이벤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4월 13일부터 22일, 5월 25일부터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방보양제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행사 품목은 경육고, 공진단, 소공진단, 원방우황청심원, 쌍화탕 등이다.

올해는 ‘한방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내원객들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



제화사 백거스님, 병원발전기금 기부

천안시 소재 사찰 제화사 백거스님이 지난 4월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백거스님은 본원에 입원 중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불교종립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뜻을 전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소중한 정재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어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환자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지난 4월 10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영진과 PI실은 직원안전과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 시설관리팀, PI실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예정된 3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를 대비한 인증 기준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직원과 환자들의 불편 사항과 시설환경 개선 부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계획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점검 사항을 검토, 개선하여 직원과 환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향후 계획된 의료기관인증조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병원주변 환경정리 및 휴게공간 조성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3월 23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33평의 신축건물(정진관) 준공 검사를 완료했다.

정진관 완공과 더불어 병원 내 · 외부 및 3층 야외 정원의 조경수 전지작업, 잡목제거, 화단정비 등 봄을 맞이하여 병원내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정진관 건립과 휴게

공간 조성 및 주변 환경개선작업을 통해 많은 교직원이 코로나19를 잠시 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환자 및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교직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내 · 외부 연등 설치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20년 경자년 부처님오시날을 맞아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 까지 직원들의 참여로 현관 로비를 비롯하여 2층 외래진료실 앞까지 연등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내에 연등을 설치하면서 모든 교직원이 부처님께서 오신 참 뜻을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신규간호사 교육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1차 25명에 이어 16일부터 17일 까지 2차 24명을 대상으로 국제힐링센터 힐링홀에서 2020년 신규 간호사 교육을 개최했다.

병원장 인사 및 간호부 소개로 시작된 2020년 신규 간호사 교육은 병원의 비전 및 경영 목표, 병원 현황 및 주요규정, 복리후생,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효과적인 감염관리, 질향상과 환자안전, 성과관리, 의무기록관리, 수혈 간호, 항암 화학요법 및 고위험 의약품 관리,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등과 불교종립

병원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불교 예절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년 퇴직자 기념패 수여식

지난 2월 25일 영양실 이경홍 선생에 대한 정년 퇴직 기념패 수여식을 가졌다.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기념패 및 꽃다발 전달식을 가졌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정년퇴직자들의 발전과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기념패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원스님 및 간호부 발전기금 쾌척

지난 3월 20일 금선사 여래선원 보원스님이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보원스님은 정형외과 김종필 교수 집도하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과정을 모두 마치고 퇴원했다. 보원스님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불교 종합병원으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하길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병원장 이 · 취임식

2020년 2월 17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병원장 이 · 취임식을 거행했다. 박성식 병원장은 그동안 병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신입 병원장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 취임하게 된 금동호 병원장은 병원발전에 지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모은 공로패를 박성식 전 병원장에게 전달하고, “병원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이기에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댈 때나 기쁠 때나 한 가족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2019학년도 일반 및 전문수련의

수료식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2월 21일 ‘2019학년도 일반 및 전문수련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금동호 병원장, 김은정 교육연구부장, 김민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수료식에서는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일반수련의 4명, 전문수련의 3명 등 전공의 3명에게 수료증과 공로패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동호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참된 치료와 신뢰를 통해 존경받는 훌륭한 전문가가 돼 행복한 날들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을 향한 코로나19 극복 후원 릴레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총 1억 원을 후원한 것에 이어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약(藥) 김치 300박스를 직접 담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달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도시락 300인분을 3주간 후원했다. 불자라고 밝힌 한 기업인은 덴탈마스크 1500장과 손소독제를 구입해 전하는 등 의료진을 향한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확진자를 치료하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도 많은 후원이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에서 성금 1000만 원을 후원한 데 이어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1600만 원, 울산불교환경연대에서 1100만 원, 금선사 여래선원 보원스님 1000만 원, 태고종 (사)나누우리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간호부 보직자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로 1010만 원을 모아 전달하는 등 이 밖에도 모두가 함께 이겨내자는 나눔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기부자 / 기부액(원)			
· 대한불교조계종(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100,000,000	· 정암사(주지 상운스님)	5,000,000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병원장 외 113명)	38,256,000	· 탁우택신내과 의원	5,000,000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교직원(병원장 외 보직자 40명)	22,009,260	· 익명(신도)	3,600,000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16,000,000	·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허태곤)	3,215,000
· 울산불교환경연대	11,000,000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석림회(학인스님)	2,011,000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0,000,000	· 대구경북병원회(고삼규 회장)	2,000,000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족모회	10,000,000	· 혜선스님(대구 금융사)	2,000,000
· 보원스님(경주 여래선원)	10,000,000	· 만꽃회	1,100,000
· 태고종 (사)나누우리	10,000,000	· 경상북도 의사회(장유석 회장 외 1명)	1,000,000
·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기획처장 외 보직자 12명)	5,136,000	· 흥인스님 외 신도 4명(안강 비장사)	1,000,000
·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 · (사)월드머시코리아	5,000,000	· 정구스님	500,000
· 익명 1(스님)	5,000,000	· 일조스님(안강 관음사)	200,000
· 익명 2(스님)	5,000,000	· 소솔암(혜문스님)	100,000

기부자 / 기부물품			
· 경북도청 ▶ 생수, 손세정제, 물티슈, 우유, 컵라면, 락스, 도시락, 방호복, 비강분무액, 혈당측정기, 손세정제, N95 마스크, 생수, 쌀국수, 매실음료, 오미자 음료, 이온음료, 라텍스 장갑, 전자 혈압계, AP 가운, 손소독제, KF94 마스크, KF 마스크, 덴탈마스크, 소독제, 물티슈, 안전주사기, 의성흑마늘산수유	· 고양시 ▶ 꽃바구니	· 오토밀레이크, 자일리톨, 목캔디, 도라지음료, 간식키트, 세척사과, 면도기, 칫솔, 삼푸, 패브리즈, 시리얼, 도라지배즙, 오미자음료	· (주)에일헬스케어 대한의사협회(사랑의 열매 공동모금) ▶ 의류용 산소발생기
· 경북도청(중국 안휘성 인민정부 기증) ▶ 방호복, 덴탈마스크	· 교양시자원봉사센터 ▶ 음료, 컵라면, 빵	· 동국대학교 노동조합(일산) ▶ 쿠키	· 이브 / (주)인스팅터스 ▶ 생리컵, 여성청결제
· 경북사회복지협의회(정부모금지원) ▶ 홍삼정 리버스마일, 홍삼캡슐 플러스, 홍삼사랑 프리미엄, 홍삼 마퀴베리, 홍삼스틱 데레드	· 낚시하는 시민연합 ▶ KN94 마스크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윤성이 총장 ▶ 컵라면, 파리바게트	· 이상복경주빵 ▶ 경주빵, 계피빵
· 경북의사회 ▶ 방호복, 마스크, 비타민 음료, 원비디(자양강장제), 특수복, 장갑, 손세정제, 공기청정기, 라텍스 장갑, 고글, 덴탈마스크, 멘소래담, 동전파스, 비강치료제, 록시땅 핸드크림, 비누	· 네스트호텔 ▶ 도시락, 마늘빵, 음료수, 쿠키	· 동국의대 17회 졸업생 김정수 ▶ 마스크	· 전국재해구호협회 ▶ 홍삼음료, 생수, 휴족팩, 방호복, 고글, 가방, 구호물품 set
· 경산시자원봉사센터 ▶ 양말	· 노르딕(황리단길 카페) ▶ 셀러드 도시락	· 동아오츠카㈜ ▶ 음료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 뱃신, 걸장갑, 페이스 워드
· 경산시청 ▶ 경산대추옹골빵	· 녹색하늘 ▶ 덴탈마스크, 손소독제	· 뚜레쥬르 안강지점 ▶ 빵	· 질병관리본부 ▶ 맥도날드 콘파이, 핫초코
· 경주대 총학생회 ▶ 멸균 폴리글러브, 손소독제, 컵라면, 음료수, 목캔디	· 닥터찰스(전남 광주) ▶ 커피	· 롯데리아 대구지점 ▶ 햄버거, 콜라	· (주)천년누리 ▶ 전주 수제초코파이
· 경주보리명가 ▶ 보리빵	· 대구경북능금농협 ▶ 사과음료	· (주)루왁코리아 ▶ 루왁커피	· (사)체인지메이커 · (재)아시아발전재단 ▶ 도시락
· 경주수협 ▶ 도시락	· 대구경북병원회 ▶ 덴탈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 백리향 ▶ 고추밥, 잡채밥, 쫄면국물	· 커피팩토리 ▶ 커피추출액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알타리, 깎두기, 물김치	· 북경대상연맹 국제경제무역센터 ▶ 덴탈마스크	· 파리바게트 ▶ 생수, 빵
	·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제주도 관음사 허운스님 및 신도회 ▶ 한라봉, 오렌지	· (주)소프런 ▶ 마스크 필터	· 한국수력원자력㈜ ▶ 방호복
	· 대한불교조계종 중국불교협회 ▶ 마스크	· 스타벅스 ▶ 스틱커피	· 한국야구르트 ▶ 야구르트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찰도시락	· 안효범(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복주머니	· 홍루이젠 ▶ 샌드위치
	·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 방호복, N95 마스크, 덴탈마스크, 고글, 라텍스 장갑, 해피박스, 홍삼정 에브리타임, 캐슈넛, 박카스, 선비별곡, 꽃감, 홍삼원골드, 외식상품권, 건조과일,	· 알통덕강정(경주융합,현곡,중앙점) ▶ 알통덕강정, 콜라	· LG 생활건강 ▶ 생수, 락스, 비누, 여행용 세면도구

본 명단은 2020월 2월 1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5759
- **문 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5755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10326

『다들 물어봐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 하면 좋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들께 물어봐서 좋은 거예요.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그 숭고한 자비의 마음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기부자 예우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후원금별 상이)

후원금 사용처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안내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TEL 031. 961. 5755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TEL 031. 961. 57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발전기금 담당
TEL 054. 770. 8126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TEL 031. 710. 3711

Cover Story

작품명

환희(歡喜)

2020

Acrylic and gel medium on canvas

72.7 x 91cm

작 가

장 소 영

영원히 추울 줄만 알았던 계절이 지나
어느새 따스한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깨진 유리창에도 언제나 햇살은 비추고
깨진 마음속에도 언제나 희망은 비춘다.

이토록 환한 빛을 가슴에 품기 위해
우리의 지난 날은 그토록 추웠나보다.

gil 길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
유튜브